

트럼프, 호르무즈파병 거듭 요구...“우리가 보호해줬잖아”

미군주둔 거론 “우리와 함께 참여하길 강력 권고...빠르게 열정적으로”

‘호르무즈통과 원유’ 의존 ↑ 미군주둔 한일 등 압박 상대적으로 커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그동안 동맹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를 지원했음을 강조하며 동맹국,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의와 오찬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만 이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은 9%,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 정도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은 채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나라에는 4만5천명의 훌륭한 (미군) 병사들이 주둔하며 그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일미군(약 5만명)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4만명 이상(실제로는

약 2만8천500명)이라고 언급해왔다.

이는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은 동맹국,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 에너지의 90% 또는 95%를 그 해협에 의존한다”며 “그들은 기꺼이 와서 우리를 돕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나는 이미 여러 나라로부터 (잠정 의향을) 받았다. 그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그들이 그것을 원할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이란의) 표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미-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맞서 글로벌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 소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호송 작전에 각국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와, 미군 주둔 등 미국의 안보 기여 수혜 정도 등 크게 두가지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둘 모두에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한국과 일본 등이 파병에 대한 미측 압박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 1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광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규모의 축구 교실'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하며 축구 기술을 연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멕시코 축구 수업 기네스 기록...월드컵 앞두고 열기 고조

9천500명 운집하며 성황

1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중심 소칼로 광장은 수많은 사람이 체조로 몸을 풀 후 곧이어 머리와 발을 이용해 환란한 묘기를 선했다. 드리블하며 절묘하게 볼을 컨트롤하는 이들도 있었다. 상당수는 축구 강사들의 지도에 맞춰 헤딩하는 자세를 취했다. 휠체어를 타고 축구 교실에 참가하는 이들도 있었다. 기네스북 기록자들은 이런 참가자들의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했다.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축구 교실이 열렸다고 AP통신, AFP통신 등 주요 통신사와 현지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현장에 모인 축구 교실 참가자는 9천500명으로 이는 단일 축구교실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25년 6월 미국 시애틀에서 세워졌던 기네스북 종전 축구 교실 참가자 기록(1천38명)을 훌쩍 뛰어넘는 신기록이다.

기네스 세계기록을 측정하는 아리스타 루에다 심판관은 현장에서 신기록을 확인하면서 “당신들의 기록은 공식적으로 놀랍다. 축하한다”고 말했다.

축구 코치인 마리오 알베르토 알베레스 아코스타는 “(개막전이 열리는) 아스테카 스타디움은 펠레와마라도나를 맞이했던 곳”이라며 “이곳에서 열리는 월드컵은 마법과 같다”고 말했다.

멕시코시티가 기획한 이 행사는 6월 개막하는 월드컵 홍보 전략의 하나라고 쿠바 언론 쿠바데바레는 설명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월드컵은 오는 6월12일 멕시코시티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개막, 7월20일까지 열린다. 대한민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A조에 속했다. /연합뉴스

美동부·중서부 강풍·눈보라...항공 결항·지연

미국 중서부와 동부에서 강풍과 눈보라가 시작되면서 16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항공편 1만편 이상이 결항하거나 지연됐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 내에서 항공편 7천700편 이상이 지연됐고 3천700편 이상이 취소됐다.

미시간·위스콘신·미네소타주 등 미국 중서부 일부 지역에는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강타해 30~60cm에 달하는 눈이 쌓였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폭풍은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사우스캐롤라이나부터 버지니아, 워싱턴DC에 이르는 동부 지역이 강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선 토네이도 경보

가 발령되기도 했다.

연방항공청(FAA)은 강풍 및 뇌우 위험을 고려해 뉴욕의 공항 3곳(라 Guardia, JFK, 뉴어크)과 워싱턴DC의 레이건 내셔널 공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공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 텍사스주 휴스턴 부시 공항에 대해 운항 지연 조치를 내렸다.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엑스(X) 계정을 통해 대규모 폭풍이 전국적으로 항공편 운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강풍 및 토네이도가 예보된 동부·중서부 지역에서 많은 학교가 휴교하거나 조기 하교 조치를 했다. 워싱턴DC에 의사가 있는 연방 하원도 악천후를 이유로 이날 예정했던 본회의의 표결을 연기했다. /연합뉴스

에너지난 쿠바 정전...“국가 전력시스템 완전 단절”

원인 조사 중...1천100만여명 불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봉쇄 속에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의 전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바 에너지장관부는 엑스(X·구트위터)를 통해 “국가 전력 시스템의 완전한 단절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현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바 국영전력청(UNE)도 “전력시스템이 완전히 끊겼으며 이는 국가전력망의 완

전한 가동 중단에 따라 발생했고, 현재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천100만여명에 이르는 쿠바 국민들은 전력 공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정전사태는 수 시간에서 며칠씩 이어지는 광범위하고 만성적인 정전사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섬 전체에 석유 공급이 3개월 넘게 끊긴 상태이며 현재 태양광, 천연가스, 일부 화력 발전소로만 전력을 가

동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쿠바는 미국의 압박 속에 베네수엘라-멕시코 등 동맹 국가의 석유지원이 끊기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왔으나, 전력망이 계속해서 붕괴함에 따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난에 따른 민심 이반도 심각하다. 최근에는 공산당 당사에 불을 지르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시민들이 공산당을 공격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에너지 부족에 따른 전력난이 악화하자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지난 13일 에너지와 경제 봉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바 정부가 미국 정부와 대화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형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형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형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